

격리 해제 확진자 검사 않고...가족은 PCR 검사 받아라?

‘셀프 방역·치료’ 첫날 불안·혼선

확진자 동거인 접촉 완료면 격리 않고 무증상시 검사 안해
“아들 확진에 보건소 갔더니 PCR 검사 필요없다”에 당황

50대 회사원 김모씨는 지난 9일 아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10일 아침 전화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출근 대신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검사를 위해 보건소를 찾았다. 하지만 “PCR검사를 할 필요 없으니 그냥 귀가하라”는 의료진의 대응에 당황했다. 예전에는 가족이 아니라라도 확진자와 접촉만해도 자가격리에 검사를 실시하고, 격리 해제시 음성 판정이 나올때까지 난리법석을 떨어야 했는데, 바뀐 방역·재택치료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다는 점이다. 확진자는 완치 여부를 판단하지도 않고 해제(해제통보도 하지 않음)하면서, 함께 산다는 이유로 가족은 검사후(음성확인) 해제하는 게 방역논리상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확진자의 동거인이더라도 접촉 완료자는 격리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별다른 증세가 없을 경우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실도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어서 보건소에서 검사 여부를 놓고 충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방역체계 습관상 시민들은 감염에 대한 공포가 커 일단 검사와 함께 격리에 들어가려는 성향을 보이지만, 방역·치료가 셀프 형태로 바뀌면서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위주의 관리에 역량을 집중한 탓에 곳곳에서 시민과 방역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도입된 확진자에 대한 셀프 재택치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집중관리군은 예전처럼 의료기관에서 하루 두차례 관리를 하지만, 별다른 증세가 없는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임신부나 소아 확진자의 경우 약간의 증상만 보여도 걱정이 되지만,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어느 때보다 필요한 헌혈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자가 급감하는 등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광주시 남구청에서 직원들이 헌혈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10일 ‘셀프 재택치료’가 시작됐지만 아직 바뀐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아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소는 물론 언론포매체들까지 해석에 차이를 보이면서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질병관리청의 10일자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확진자는 물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검사 대상 시민들이 가장 혼란을 겪는 부분이 바로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이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의문을 품는 대목은 확진자는 1주일 격리하되 격리해제시 PCR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진자의 동거인(가족)은 격리 1주일 후 반드시 PCR검사 음성확인후 격리해제한다

김선호 전 광주효광중 교장, 교육감 출마 선언

김선호 전 광주효광중 교장이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교장은 10일 오후 광주 충장로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다른 풍부한 교육 현장의 경험과 시민 사회활동의 경험이 있기에 21세기 미래의 광주 교육을 설계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한다”며 “기초 소양을 부족함 없이 쌓아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의 특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등 4개 영역의 역량을 강

화하는 교육에도 빈틈없이 하겠다”며 “호기심, 진취성, 지구력, 적응력, 리더십, 사회문화적 의식 등 6개 영역 중의 개인적 특성을 잘 발휘해 미래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교장은 공립 중·고등학교와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교장·교감을 두루 거쳤으며 광주시의회 교육위원과 동아여중·고 관선 이사장을 역임했다. 광주시교육청 교육발전 자문위원과 광주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지도위원, 한국유권자중앙회 광주광역시 총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5·18 연구논문 공모

지속적인 5·18민주화운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5·18 연구 논문 공모사업이 진행된다.

1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5·18연구를 위해 논문 공모 사업을 펼친다. 논문 공모사업은 신진 연구자를 발굴·지원하고, 지속적인 5·18연구를 위해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연구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공모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등 관련 양식을 받아 28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재단은 3월 내에 공모 계획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술연구 논문을 선정한다. 선정된 연구자들은 10월 까지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11월 감수·자문을 거쳐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선정된 전문연구자 6명에게는 300만원씩을 지원하고 대학(원)생 2명에게는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충장로 옛 영광 다시 한번

광주 동구, 100억 규모 ‘상권 르네상스 사업’ 본격화
충장로는 페스타 등 ‘문화가 있는 A·C·E 상권’ 추진

집체된 구도심인 ‘충장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10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호남지역 최대 중심상권인 충장로 상권이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100억 원 규모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됐다.

동구는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제5차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충장로와 금남(충금) 지하상가를 지하와 지상을 잇는 입체 상가로 융합해

도시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1년 차 사업이 시작되는 올해부터 충장로1-5가 일원에 다양한 판매장터와 볼거리를 제공해 다양한 연형태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충장로(RA-ON) 페스타’와 코로나19로 침체에 놓인 지역 문화예술인은 물론 소상공인, 지역민을 위한 ‘충장문화데이’를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인다.

상인들의 자생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상인리더 육성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변화하는 고객들의 소비 트렌드에 맞춰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인혁신대학’

운영, 맞춤형 경영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동구는 ‘문화가 숨쉬는 행복 충장, A.C.E 상권’이라는 비전 아래 ▲예술(Art)이 있는 상권 ▲문화(Culture)가 있는 상권 ▲지속가능한(Eco) 상권 등 3개 테마로 호남지역 최대 중심상권인 충장로 상권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 추진단’ 구성을 완료했다.

추진단은 충장로 상점가와 금남(충금)지하도상가 일대를 대상으로 ▲구간별 특화거리 조성 ▲충장영화제 ▲특화디자인 스트리트 ▲미디어 아트존 ▲충장특화마켓 ▲충장문화데이 ▲특화거리 페스티벌 ▲정년·장인 커넥티드 ▲스마트 쇼핑 플랫폼 ▲핵심업 육성 등 진행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상의, 현대삼호중 작업 재개 협조 요청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의 장기화로 협력업체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목포상공회의소가 목포고용노동지청에 작업 재개 협조를 요청해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19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광주일보 1월 20일 6면) 이후 건조중인 선박 중 사고현장과 유사한 형태의 화물창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목포상의는 지난 9일 보낸 협조문을 통해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는 중소기업들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의 경기회복을 위해 현대삼호중공업의 조속한 작업 재개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작업 중지가 장기화되면서 건조 선박의 화물창에 대한 공정 처리를 위해 작업대기 중인 소속 직

영 근로자와 사내 협력사 근로자 500여명의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는 주장이다. 또 해당 공정이 장기 지연됨으로 인해 선박 전체 건조 공정 및 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 1만여명에게도 직·간접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목포상의는 “연간 40여척의 선박을 건조하는데 일부 공정의 중단은 전체 공정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 “조선업이 지역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선처를 각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염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